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음 11월 1일) 제3404호

전주매일 CMYK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중치료 전문 에인 인행과 의위 원장 곽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www.jjmaeil.com

새 시대 특별한 전북… 희망의 신호탄 쏘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브리핑

→ 관련기사 3면 · 4면

개정 법안, 국무회의 공포 1년 후부터 시행 도, 조속한 준비 착수

김관영 도지사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얻어낸 성과" 감사 인사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새로운 시대 특별한 전북을 위한 희망의 신호 탄이 쏘아 올려졌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더불 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 대한 브리핑을 가지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 자치도에 131개 조문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 법이 국회를 통과하 지 1년여 만에 전 부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북특별 자치도 출범이 가능해졌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 쳐 공포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된 법 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여야정 모범적 협 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 시키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 올 한해는 제대로 된 전북특별자치도 출 범을 위해 전북인들이 한마음으로 힘 을 모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전북도는 올해초 발 빠르게 전담조 직을 구성하고, 도-시군-의회-전문가 가 연합한 특례발굴단을 통해 전북형 특례 발굴에 매진했다. 다양한 도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토 론회·포럼도 수차례 거쳤고, 비전위 원회를 통해 '생명경제'를 키워드로 비전체계도 수립했다.



12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심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지며 도민들에게 감

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발굴한 특례를 가지고 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설명하고 협의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지난 8월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작된다. 30일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지난해 아울러, 2차 특례발굴도 본격적으로

에 이어 여야를 대표해 각각 법안을 진행된다. 이번 전부개정에 포함되지 발의했으며, 9월에는 윤준병 의원이 못한 특례와 추가로 꼭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 발굴해 추가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된 부처를 상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전북특별법 대로, 전북도의 끈질긴 노력과 지휘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간 추진 과 중심 장・차관 집중 활동, 도내・외 정, 향후 전북의 달라질 모습에 대해 주요 인사들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설명한 뒤 "마침내 전북특별법 전부개 '부처 최종협의안'이 도출됐고, 국회 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31개 조문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는 지역 국 성공 출범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 며,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얻어 낸 소중한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온전 히 돌려드린다"고 도민들에게 거듭 감 사 인사를 건넸다.

한편,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 자치도 출범에 맞춰 14개 시군과 함 께 의미를 공유하고, 전 도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 으며, 기념통장 출시, 기념우표 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념 이벤 트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

전북특자도 새 도시브랜드 확정

선호도 조사결과 토대… 도,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 자치도를 대표할 새로운 도시브랜 드(상징물)가 확정됐다.

전북도는 새롭게 개발한 도시브랜 드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 발전 의지 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도시브 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도내·외 각 전문가로 구성된 브랜드위원회, △전북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참여단 전북+, △브랜딩·디자인 전문 개발사로 이루어진 3축 체제 로 개발을 진행해 왔다.

특히 도는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줄 수 있고, 유연한 확장성과 친근한 접근성으 로 다가갈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전복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문장(기본형)

찾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 인식조 사, 토론회, 공모전, 원탁회의, 공청 회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장 디 자인 후보안 4가지와 브랜드 슬로 건 후보안 3가지를 도출했으며, 지 난 11월 전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전 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상징물을 결정했다.

문장은 전북을 가장 쉽고 직관적

도, 고창 상하 럼피스킨 도내 3번째 방역대 해제

37개 농가 대상 이동제한 해제 생축 이동 자유롭게 거래 가능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 유지

전북도는 12일 럼피스킨 발생지인 고창군 상하면 방역대 해제검사를 완 료하고 방역대내 37호에 대해 이동제 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방역대 농가는 생축(소)의 이동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생축(소) 이동시 시군 가축방역관의 출하승인 임상검사도 해제해 언제나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는 그 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성효 동물방역과장은 "처음 발생 한 럼피스킨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축 산관계자에 감사와 함께 아직 남아 있 는 방역대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며, "가축전염병이 언제라도 내 농 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 지고 축사 소독, 청결 관리 등 차단방 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 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어갈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서의 전북특별자치도를 표현했다. 브랜드 슬로건으로 개발한 '새로 운 전북 특별한 기회 는 새로운 시 대를 여는 창의 이미지를 통해 전북 의 새 변화를 알리고, 특별한 기회 를 통해 미래를 먼저 열어가는 전북

의 긍지와 희망을 표현했다. 특히

비상하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으로 알릴 수 있는 글자 그 자체로

나타내었으며, 전북의 역시를 간직

한 '땅'과 새만금・호남평야 '지평

선'을 결합해 미래의 새 지평을 열

서체의 획을 사선형으로 연결했다. 한편, 전북도는 조선시대 전라감 영이 자리했던 전주의 완판본을 현 대화하여 전통과 미래의 조화, 역동 성을 담은 전용서체를 개발하고 많 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김재훈 기자 예정이다.

회의원들과 연고 의원들의 노력 끝에 지난달 9일 행안위에 상정되며 논의가 시작됐고, 이달 8일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히, 행안위 1 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전북 출신 강병 원 의원이 위기마다 중재에 나서며 큰 힘을 보탰다.

에 전달되기에 이르렀다.

완했다.

현 특별법에 따라 2024년에는 감사위 원회가 설치된다. 독립된 감사기구를 통해 내부갑사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부개정을 통해 위임받은 사



새롭게 문을 여는 공립단설 유치원

2024 유아모집

추가모집

2023.12.1.(금)~ 인원 충족 시 마감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 063-214-8788



© 063-237-5230

